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1티모 4:4)

✠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색하고, 불편하며, 불안한 일상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했었던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동대문교회는 7월 5일(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봉헌합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려움 가운데 발견하는 주님의 은총은 더욱 깊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맥추감사주일, 우리는 ‘감사나눔의 길’을 봉헌하려 합니다.

‘나의 감사’를 함께 나누어 더 큰 ‘우리의 감사’로 봉헌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절반을 지내는 동안,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발견한 감사한 것들을 목상하시고, 사진이나 글을 적어서 활동단체장이나 사목단에게 7월 2일(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글과 사진으로 제작한 ‘감사 나눔의 길’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교우님들을 위해 ‘감사 영상’도 제작합니다.

예시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전과 같이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는 서로가 더욱 필요합니다. 더불어 감사 나눔의 길에 꼭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감사의 잔치로 ‘특별한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맥추감사주일
동대문교회 사목단

